코로나19 확산 관객 · 지역주민 안전 위해

무주산골영화제, 온 · 오프라인 분산 개최

내달 4일부터 개막식 · 야외프로그램 '무관객 온라인 라이브 방송'
상영작은 올해 하반기부터 무주 · 서울에서 '오프라인 극장 상영'

지난 1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카탈로그 배포 등을 통해 올해 영화제의 영화 및 공연, 이벤트 프로그램을 모두 공개한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2020.6.4.-6.8.)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객 및 무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예년과는 달리 무관객 온라인 라이브 방송 및 오프라인 극장 상영을 통한 분산 개최 방식으로 올해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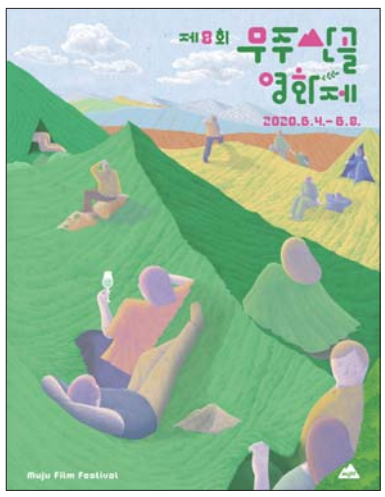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관객과 무주 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영화제를 기다려온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및 오프라인 극장 상영 영화 상영을 결합한 온/오프라인 분산 개최 방식으로 올해 영화제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6월 4일부터 시작되는 본 영화제 기간에는 개막식과 같은 영화제 공식 행사와 이미 예고된 야외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무관객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올해 영화제를 오랫동안 기다려 온 관객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지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온라인으로나마 응원하기 위한 결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오는 6월 4일 저녁 7시, 무관객 온라인 라이브 개막식을 시작으로 무성영화 라이브 연주, 음악 공연, 토크, 시상식 등 무주산골영화제의 주요 야외 행사들은 추후 안내될 온라인 채널을 통해 관객들과 만나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주산골영화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한국장편경쟁부문 '창' 섹션에서 상영되는10편의 작품들은 영화제 기간동안 심사위원들을 위한 별도의 비공개 스크리닝을 통해 상영된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 뉴비전상(상금 1,000만원), 나봄상(신설.상금 500만원), 영화평론가상(상금 300만원), 총 3개 부문의 수상작들은 온라인 시상식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영화제 기간에 일반 관객들과 만나지 못하는 10편의 상영작들은 영화제 이후 하반기에 특별전의 형태로 서울에서 일반관객과 만나게 될 것이다.

올해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상영하기로 되어 있었던 모든 상영작들은 하반기부터 프로그램별로 나누어 무주 및 서울 등에서 오프라인(극장상영) 방식으로 상영할 예정이며, 무주산골영화제는 이를 영화제와 무주를 더 많은 관객들에게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올해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넥스트 액터: 고아성' 프로그램은 서울에서 전시, 영화 상영, 토크 등을 모두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새로운 시선으로 한 명의 감독을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 '무주 셀렉트: 동시대 시네아스트'로 선정된 '켈리 라이카트' 감독 특별전 역시 영화 평론가들과 함께 더욱 풍성한 상영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 관객을 대상으로 한 '키즈 스테이지'는 영화인들을 무주로 초청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할 예정이며, 올해 야외상영작 또한 재구성해 여름방학 기간 중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상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실내 상영 예정이던 작품들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서울과 무주 및 다양한 지역에서 보다 많은 관객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무주산골영화제 유기하 집행위원장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시기에 영화제를 준비하며 여러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남다른 각오로 준비한 올해의 프로그램을 관객들에게 직접 소개할 수 없게 되어 너무 아쉽다. 하지만 오랜 고심 끝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해 프로그램들을 온 · 오프라인 분산개최라는 무주산골영화제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기로 결정했다. 아쉬운 분들이 많겠지만 부디 이해를 부탁드린다. 더불어 6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온 · 오프라인 분산 개최와 관련된 세부 사항과 상세 일정은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지공예대전 대상에 '지승, 짜여짐' 선정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김현지, 소희 작가의 '지승 짜여짐' 작품을 제26회 전국한지공예대전 대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총 210점(전통 42점, 현대 107점, 기타 61점)의 순수한지공예 작품이 출품됐다.

공예 미술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김현지, 소희 작가의 '지승, 짜여짐'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두 작가의 작품은 지승(종이를 비벼 꼬아서 만든 끈)과 한지사(한지를 원료로 만든 천)를 이용해 직물을 제작한 공예품으로 현대적 디자인과 한지 공예의 아름다움을 현실감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최우수상에는 전통 부문의 박인숙 작가의 '지승제기'가, 현대 부문에는 임은희 작가의 '존재의 가치, 또 다른 나'가 각각 뽑혔다.

우수상에는 전통 부문 라경희 작가, 현대 부문 소진영 작가, 기타 부문 조현진 · 이인환 작가가, 장려상에는 전통 부문 전학식 작가, 현대 부문 박민옥 작가, 기타 부문 임수영 작가가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불확실성의 국제정치, 한국이 나가야 할 길

원광대 최재덕 교수 저서 '대한책략', 러시아서 자국어로 출간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공자학원 최재덕 교수 저서 '대한책략'이 최근 러시아에서 자국어로 번역돼 출간됐다.

지난해 출간된 '대한책략'은 남 · 북 · 미 · 러 협력과 한 · 중 · 일의 대등한 외교를 제시한 21세기 국가전략 중심의 국제정치학 서적으로써 미 · 중 패권전쟁과 일본 경제보복이 심화되고 동북아시아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외교 · 안보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 한국이 처한 동북아시아의 상황과 미 · 중 · 일 · 러 4강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정치 상황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이 러시아에서 자국어로 출판돼 동포사회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일본의 대한국 무역제재 등 근래에 없었던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형 국제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룬 전문 서적으로 러시아 매체에 소개돼 조명을 받기도 했다.

21세기 한반도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완성과 신북방 · 신남방 정책 성공의 열쇠로 남 · 북 · 미 · 러 협력과 한 · 중, 한 · 일의 대등한 외교 지향을 주장한 저자는 한국은 강대국 편 가르기 압박에 직면했다면서 중국 '일대일로'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한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깊이 고민해야 하고, 특히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미 · 중 모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강조했다.

최재덕 교수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 MBA석사, 중국 북경대학 박사학위에 이어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 · 중 관계, 중 · 러 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국립민속국악원, 30일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담판'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에서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담판(이하 담판)으로 심청가 중 '질긴 가난과 탄식의 나날을 주제로 하는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담판은 판소리의 인류무형유산으로 가치를 극대화하고 관객들에게 판소리의 인문학적 지식을 향상시켜주는 해설이 있는 판소리 공연이며, 4월부터 11월까지(10월 제외) 매월 넷째주 토요일 3시, 풀이꾼 원기중(국문학 박사)과 이야기꾼 왕기석(국립민속국악원 원장)의 진행으로, 매달 각 주제에 맞는 명창들의 판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의 기획공연이다.

올 두 번째로 만나게 될 담판에서는 정회석 명창의 소리로 평토제 지내는 대목부터, 심 봉사의 젖동냥과 심청의 밥 동냥 대목까지 감상할 수 있다.

관람은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선착순 70명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예약은 전화(063-620-2324~5)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코로나19 극복… 공연도 온라인으로

정읍시, 유튜브 채널 '정읍 See'서 생중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덕분에 챌린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21일 코로나19 극복 응원을 위한 무관중 공연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방역 규칙을 준수하며 꾸준히 연습을 해오던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과 의료진, 소방관 등을 응원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날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소방관 등을 응원하고 함께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시립국악단의 창작 국악가요 '건강한 봄'으로 시작된 이 날 공연은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 See'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해당 공연은 정극인의 '상춘곡'을 모티브로 창작했던 '그런 새봄'을 코로나19 없는 건강한 봄을 기원하는 가사로 개사한 공연이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의료진과 소방관들에게 전하는 가족들의 영상 편지와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유진섭 시장 등 각 계각층의 영상 메세지가 상영됐다.

또, 코로나19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노고를 담은 영상도 공개되며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전주매일 캠페인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